



권혁선 수석교사, 제10대 중등 수석교사회장 취임

전북에서 처음으로 전국 수석교사회장이 탄생했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권혁선 수석교사가 제10대 전국 중등 수석교사회장으로 취임했다. 권 수석교사는 2020년 전북 중등수석교사에 임용돼 연구국장 정책국장으로서 활동했으며, 올해 전국 수석교사 회장에 임추보했다. 그동안 일반교에 근무하면서 학생의 적성과 진로 중심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비롯해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생 중심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하고, 학생의 잠재적 기능을 최대한 함양하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지원해왔다. 현재 전북에서는 유·초등 29명, 중등 30명 등 총 59명의 수석교사가 활동하고 있다. 권혁선 회장은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 뿐만 아니라 고교 학점제, 성취평가가 도입되는 시점에서 학교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가 확대 배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다른오름, 우리밀영농조합과 전통주 협약

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인 다른오름 농업회사 법인(대표 김지웅)이 지난 2일 우리밀영농조합(대표 신지호)과 전통주 생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4일 전주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혁신형 연구소기업 설립 사업 결과로 추진. 양 기관은 전통주 생산을 위한 원재료 공급 및 R&BD 제휴를 통한 상품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업은 국내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개발과 사업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리밀영농조합은 2008년 설립돼 병충해에 강하고 국내에서 재배된 우리밀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남원 왕정동 지사협, 취약계층 밀반찬 지원

남원시 왕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일 지역 사회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이 담긴 밀반찬을 지원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이번 밀반찬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거동 불편으로 식사 준비가 힘든 이웃들에게 밀반찬을 제공,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다. 왕정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와 시니어클럽, 생활 지원사들이 협력해 진행하는 이 사업은 정기적으로 신선한 밀반찬을 대상 가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상섭 정읍 의용소방대원, 주민들 위험서 구해

정읍시 소성면 화룡리 화재 현장에서 고령의 주민 7명을 위험에서 구한 의용소방대원의 헌신적인 활약이 뒤늦게 알려지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오후 2시 14분 고창군 성내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30분만에 정읍시 소성면 금동마을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형 화재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현장에서 먼저 상황을 파악한 사람은 정읍소방서 소성남성의용소방대 김상섭 대원(58, 금동마을 이장)이었다. 김 대원은 당시 외출 중으로 위험을 직감하고, 서둘러 귀가하여 곧바로 주민 대피에 나섰다. 일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그냥 집에 있겠다”며, 대피를 거부하며 자택에 남아 있으려 했으나, 김 대원은 끝까지 설득하며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애썼다. /오만호 기자



김상섭 대원

고향사랑 기부 통해 양 지역 협력·발전 다짐

남원 도동동, 경남 사천 선구동과 고향사랑 상호 기부

남원시 도동동(동장 소선자) 관계자는 자매결연을 맺은 경남 사천시 선구동(동장 서기홍)과 각 130만원씩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양 지역의 협력과 발전을 다짐했다. 남원시 도동동과 사천시 선구동은 2000년 5월 자매결연을 맺고 25년 동안 매년 문화교류행사 및 고향사랑기부제 상생협약을 체결하며 상호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등 다양한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한편, 도동동은 사천시를 방문해 제95회 춘향제, 남



원누리시민 관의 인구유치 협조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등 다양한 시정 주요사항을 공유하였으며, 선구동 인근에 위치한 사천시청내 주요 부서들을 경유하며 시정 주요사항 집중홍보에 매진하였다. 소선자 도동동장은 “흔쾌히 상호기부에 동참한 동 직원들에게 감사사를 드린다면, 앞으로 도 양 지역의 협력을 기반으로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상생발전과 가치를 실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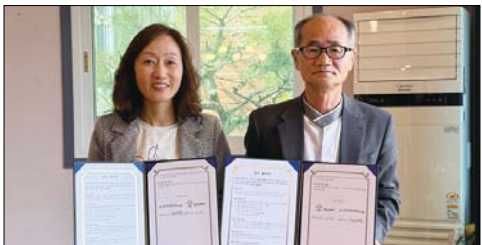
제45회 전북특별자치도 농아인체육대회, 익산시서 개최

완연한 봄기운이 감도는 4월,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화합과 열정이 익산에 모였다. 한국농아인협회 전북특별자치도협회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협회 익산시지회가 주관하는 제45회 전북특별자치도농아인체육대회가 오는 4월 11~12일 익산시 일대에서 개최되었다. 전북자치도 내 14개 시·군 지회에서 약 1,200명의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참가해, 축구, 디스크골프, 볼링, 배드민턴, 한궁, 숫자판단지기, 탁구, 율러 등 총 8개 종목에서 기량을 펼쳤다. 이번 대회는 익산시 실내체육관을 중심으로 펼쳐지며, 첫날에는 볼링, 배드민턴 등의 사전 경기가 진행되며, 둘째 날에는 축구, 디스크골프 등의 주요 경기가 열렸다. 공식 개최식은 12일 오전 11시, 익산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으며, 개최식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내빈 소개, 환영사, 대회사, 축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대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청각·언어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농아인체육대회는 해마다 농아인들의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대회는 특히 싱그러운 봄 기운 속에서 펼쳐지는 만큼 참가자들에게는 더없이 활기차고 희망찬 시간이 되었다. 유순기 협회장은 “푸르른 4월, 전북의 농아인들이 익산에 모여 스포츠를 통해 함께 웃고 소통하며 진정한 화합의 장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며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의 후원으로 열렸으며, 경기 외에도 참가자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되어 이를 통해 농아인 체육 활성화는 물론, 지역과 장애인 간의 연대와 소통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만호 기자·익산=이재훈 기자



진안군약사회·제일약국·전원일기 등 기부와 후원 이어져

진안군에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4일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진)는 진안군약사회(회장 서예영)에서 500만 원 상당의 제일퍼프 500갑을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제일약국(약사 서예영)은 진안군다함께돌봄센터에 300만 원의 지정기탁금을 전달했으며, 전원일기(대표 이은주)는 푸드마켓 이용자를 위해 100만 원 상당의 라면 30박스를 기부했다. 진안군약사회가 기부한 제일퍼프 500갑은 전라북도 약사회에서 배정된 물량으로, 근골격계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제일약국의 지정기탁금 300만 원은 진안군 다함께돌봄센터의 아동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또한, 전원일기가 후원한 라면 30박스는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지역 내 복지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될 계획이다. 서예영 약사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진안군약사회, 제일약국, 전원일기의 후원이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시, 남원가족센터 등과 복지 향상 협약 체결

남원시는 지난 4일 남원가족센터와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교류 및 지원 △가족센터 사업 및 행사 홍보 △가족센터 시설 이용 협력 △지역 복지사업 및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원시는 가족 및 육아 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부모와 아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미옥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의 가족 및 육아 지원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부모와 아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진안군약사회, 제일약국, 전원일기의 후원이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 운봉읍 등, 치매극복 선도기관 협약

남원시 운봉읍 행정복지센터(읍장 이은주)는 지난 4일, 남원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 안심마을 업무협약 및 치매극복 선도기관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운봉읍 지역 주민들의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운봉읍 전 마을이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되며 두 기관은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공동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또한 운봉읍은 치매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 직원이 치매파트너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치매 어르신들에게 먼저 다가갈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실천 중심의 활동을 통해 치매 친화적 지역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대 간호학과 ‘제15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전주대학교 간호학과는 4일 예술관 2아트홀에서 ‘제15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과 사명을 이어받아 전문 간호와 돌봄을 실천하는 정인 간호인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숭고한 의식이다. 이날 행사는 박진배 총장, 한병수 선교봉사처장, 유인영 의과대학 학장, 간호학과 김현영 학과장을 비롯한 간호학과 교수, 학부 및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하은 학생을 비롯한 69명은 “선서식의 마음을 잃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전문 간호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했다. 박진배 총장은 “‘제15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끊임없이 성장해가고 있는 전주대학교 간호학과와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격려했다. /장은성 기자



정읍교육지원청, 산불 피해 성금 350만원 기탁

정읍교육지원청이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소성면 주민들을 위해 35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나눔 실천에 앞장섰다. 이번 성금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정읍교육지원청은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기탁을 결정했다. 최용훈 정읍교육장은 “산불 피해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전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남원 드론축구 동호회, 한일 친선대회서 우승

남원 드론축구 동호회 알파스카이팀이 지난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PYO에 한일드론축구 친선대회에서 압도적인 점수 차로 우승하였다. 남원 알파스카이팀은 지난 2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열린 한국 모형 항공협회 주최 한국팀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출전권을 확보하고 참가하게 되었다. 남원 알파스카이팀(감독 오승권, 배재대 이정민, 남원고 오찬상, 남원한빛중 오진형 선수)은 일본의 강팀 미키와 돌핀스와 스카이호크 팀을 상대로 모두 더블스코어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경찰-패트론티, 공동치안 활성화 소통 간담회

김제경찰서(서장 박승준)는 지난 3일 서장 주재로 “공동치안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승준 김제경찰서장을 비롯한 패트론티,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학부모들이 직접 체험하는 학교 안전 분위기 고조를 공유하며,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의 원인과 예방책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학부모들은 △학교폭력, 청소년 도박문제 △청소년 흡연 취약 구역, 키보드 위험성을 주요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김제경찰서는 교육청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신종범죄 유형·예방법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 전파 및 학생들 상대로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패트론티 관계자는 “경찰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서 좋았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박승준 김제경찰서장은 “청소년 범죄는 가정·학교·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도태기자